

찬양: 지금까지 지내온 것 (301/통 460장)

1. 11 월은 감사의 달입니다. 감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표현해야 합니다.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감사의 표현이 서둘 때가 있습니다. 나에게 도움을 준 이웃,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가족에게 잊지 말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. 내가 올해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할 대상은 누구이며, 어떤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.
2. 우리가 사는 이 나라, 미국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곳이고, 우리의 자손이 살아갈 나라입니다. 우리가 이민 와서 터를 잡고 살게 해 준 고마운 나라입니다. 힘들었던 이민생활 중에도 잊지 못할 감사의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? 함께 나누어 봅시다.
3. 교회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. 교회는 우리 이민자들에게 영적인 고향입니다. 하나님께서 CPC 로 인도해 주셨습니다. 이민생활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교회입니다.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특별히 감사할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.
4.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. 우리를 구원하시고, 인도하시고,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. 특별히 지난 COVID-19 중에도 우리를 도우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. COVID 기간 중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.